

## 이방여인의 믿음

룻기 1:16-22 2015년 12월 6일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으로.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아니었다면 왜 고향을 떠났겠습니까? 근데 그 곳에서 남편 잃고, 또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혼자가 된 나오미.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한숨만 나오고 앞날이 어두워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귀향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따라오지 말고, 잘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스가 극구 나오미를 따라 오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말립니다. 고생할 것이 뻔하게 보이니까 말입니다. 루스는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인입니다. 모압사람들이 유대인들을 18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압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금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으로, 루스가 이민가면, 뻔합니다.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루스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갑니다.

두 여인의 함께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과부여, 자식들이 없으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루스는 이방여인으로 앞 날이 환하지 않습니다. 두 과부가 넘어야 할 벽들이 두 겹기만 합니다.

“너 나오미 아니니?” 했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 나오미가 더이상 아니야. 내 이름은 마라야. Bitter. 맛이 쓰다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고, 쓰다, 쓰라리다. 쓴 맛, 고생, 고통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고, 한 숨을 얼마나 내 쉬었겠습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는 것이 힘들니까? 나오미와 루스의 상황하고는 똑같지 않더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태산이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건가? 서러움에 눈물이 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나오미 루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가까운 친척인 보아즈를 만나게 되고, 루스는 보아즈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 결혼을 통해, 나오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손자도 얻습니다. 오벳인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윗 이후, 28대 지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구세주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오미와 루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여인, 별 볼일 없는 여인들.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섬세한 구원의 손길을 그 곳에 있었습니다. 번쩍 번쩍 대단한 사람들, 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자들, 아니 우리들 보다 더 힘든 자들을 저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며는, 불쌍한 모습입니다.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모래위의 발자욱 시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운신드롬 부부 있었습니다. 근처 놀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사람들 처럼 일상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같이 부부생활을 오랫동안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아내인 앤이 큰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두 부부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부생활을 하고 있나요? 누가 음식을 준비하나요?” “제가 합니다.” “설겅이는요” “제가 합니다. “빨래는요?” “제가 합니다.” “제가 음식 쇼핑도 하고, 옷도 쇼핑합니다.” 자랑스럽게 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남편 짐은 뭐하나요, 그렇다면?” 앤이 금새 답을 안했습니다. 좀 침묵이 흘러간 뒤에, 앤이 하는 말이, “짐은 나를 사랑합니다.”

난 고생만하네. 난 되는 것이 없네. 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시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열매 맺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나의 고통을 통해, 나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상한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룯과 나오미를 향해 보여주셨습니까?

바닥을 치고 힘들게 사는, 루스와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보아즈를 만나게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나가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들이십니다. 필요할 때, 격려해 주시고, 사랑 주시고..

지난 주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간, 바바라가 보내 준 메모를 받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삼 목사님,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쳐 주신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쉬면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소식 듣고 기뻐합니다. 목사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목사님의 사역이 능력이 있는지를.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어필드 교회의 예배가 그립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온한 느낌이 그립습니다.”

요즘 사실 제가 좀 힘이 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목회 사역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 초조하고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운을 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오늘 세례받고, 새 가족으로 입교하신 글래스톤 가족은, 제가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만난 가족입니다. 정확히 2008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점심을 했지요, 친교실에서 예배 마친 후에. 그런데 제이슨과 그의 가족이 입교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서 하시고자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힘차게 펼쳐지는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가족도 귀한 만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동업자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가볍게 받아넘기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만나게 인도해 주셔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짧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